

안디옥교회 (사도행전 13:1-12)

오늘 우리가 볼 제목이 안디옥 교회이다. 중요한 교회인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게 우리의 언약이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한다. 제자들에게는 전도가 일어나야 한다. 오늘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은 것들을 통해 렌넨트 운동 일어나야 한다. 미국과 남미의 시대적인 복음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을 전달할 하나님의 표본적인 교회, 지금까지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새출발이다. 지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출발이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안디옥교회, 미국과 남미에 기념비적으로 남을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한번 해라 되지 않겠는가? 위하여 오늘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응답이다. 언약을 잡고 예배 드려서 흑암세력을 꺾어 버리는 것이다. 복음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 자녀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뱀의 머리는 박살날것이라는 언약잡고 예배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는 것이 사실 복잡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왜냐면 하나님의 답 약속을 따라가면된다. 조금만 따라가면서 참으면 증거 나타나게 되어 있다. 증거가 몇 개나 쌓이면 확신이 온다. 그러면 길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다. 마른 땅을 건널 것이다, 약속이다. 니가 만일 내 언약만 따라가면 내 인생의 모든 요단강을 마른땅 건너게 할 것이다.

지난 주에는 무엇이었는데?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군사훈련을 하는게 아니라 너가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할례를 회복해서 니가 누군가를 회복해라. 그리고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언약으로 잡아라. 그 날 저녁처럼 니 인생에 역사할 것 아니냐?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 내가 대신 싸울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되어지는 인생이고 미리 인생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그러면 그렇지. 이제 끝났어. 이게 미리인 것이다. 너희는 백날 해봐도 안된다. 아무리 연합군이 찾아와도 군대장관이 있으니 끝났어. 이것이 메세지속에 많이 나오는 '미리'이다. 답 딱 나는 것이다. 이러던 중에 라합 이야기도 써놨다. 보라. 그는 기생인데, 언약 잡았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나? 다른 방법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도 뒤집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은 두 개 있다. 예배와 기도이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언약을 잡는 것이다. 그러면 흑암세력 무너진다고 계속 말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잡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눈이 열린다. 우리 인생의 문이 계속 열려야 하지 않는가? 계속 끊임없이 열려야 한다. 이유가 뭐냐? 문제가 끊임없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리는 것이다. 그것과 함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려야 한다. 축복 권세 정복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면 큰 인생을 살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의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외에는 사실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런 언약 잡은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진짜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인데, 딱 결심하고 언약으로 끝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래요..라는 생각이 들어온다. 한마디로 끝내버리라. 상처고 뭐고 상관 없다. 언약인데 무슨 상처, 그렇게 어디 있는가? 딱 언약 잡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란다.

1. 전도

오늘 본문은 지구 생기고 첫 번째 선교를 시작하는 장면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 전에는 선교라는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다. 할례는 이스라엘 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돈으로 산 사람도 다 하게 하였다. 안디옥 교회 중요한 멤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세우라고 하였다. 그래서 안수해서 내보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처음으로 최초로 선교를 행한 시대적인 교회이다. 당연히 세계 복음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 전달할 제자들도 있었다. 그러면 준비가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남았다. 그 시간표가 나와서 둘을 따로 세우라고 한 것이다. 사실, 안디옥교회만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없다. 전도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에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전도도 기도응답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 많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을 자꾸 데려올 생각을 하니깐 그렇다. 전도는 가만히 세워놓고 답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답이 필요하다. 그 답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담이 없다.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다. 이미 답까지 있는데, 답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제자가 붙여진다. 사람이 다르다. 그 때는 답과 전도를 같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기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 넘는 근본이지만 하나님은 전도까지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전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려고 발버둥을 치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뿔레야 뿔수 없는 것이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수 있는 길이다. 누구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살아난다. 거절만 안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아주 틀림없다. 세상에는 이처럼 틀림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 말씀 때문에 짐승도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이 가슴에 들어오면 전도도 되고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개 있다. 다른건 가치도 없다. 사람을 건지는 것이다. 그것 뿐이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중요하게 볼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가 조용하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진짜 전도를 귀중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기도를 잊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되게 해주세요, 안그러면 죽어요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렇게 된다.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구나. 아무도 손 못 댄다. 그리고 이 인생이면 당신의 인생도 반석 위에 세워질수 있다. 이것을 말할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당신 인생의 답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습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 있냐? 돈 주라. 자기 인생 문제가 돈이니까. 그런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된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전도자는 누구냐면 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열쇠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 하나가지고 니 인생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문제의 문을 열수 있는 열쇠이다. 확인했으니까. 자기 인생에서 누리므로 확인되었으니까. 우리 모두 이런 증인 되기 바란다. 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 것이다. 복음이 답인데, 기도가 답이다. 그래서 전도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축복 권세를 찾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2. 기도

복음 다음은 기도이다. 그리고 기도가 열쇠이다. 실질적인 열쇠이다. 근본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는 모든 기도가 열

쇠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모두 열쇠를 받았다. 마태복음 16:19절에 베드로의 말은 약속이고 명령이다. 내가 너에게 이 열쇠를 주겠다. 약속이다. 그리고 너는 이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매일 열러라. 명령이다. 하늘 뿐 아니라 니 인생의 문도 다 열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니가 증인되어야. 명령이다. 이 열쇠를 가진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어쩌다 우리가 한번씩 넘어지고 무너져도 상관 없다. 사단은 절대 못 이긴다. 그리고 내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내가 기도할때마다 사단은 자꾸 무너져야 한다. 이게 열쇠의 권세이다. 우리 기도제목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야기 하는데 믿음이 보겠느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마가복음 11:23절에 더 세 개 말했다. 니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도 옮길수 있다. 우리가 안디옥교회 되면 산보다 더 큰거 움직일수 있다. 여기있는 산을 다른데로 옮기면 뭐하는가? 안디옥교회,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길 것이다. 24절에는 니가 믿고 구한 것은 받으실 믿으라고 했다. 계 8:3-5절 자주 듣는 말씀인데,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모아서 하나님 보좌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전달되니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전도는 기도 위에 세워진 망대이다. 문이 열려야 전도를 할 수 있다. 그 문을 기도로 여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 위에 세워진 망대이다. 사도바울의 전도여정을 보면 확실히 드러난다. 빌립보에 갔을 때 수일을 유하다가. 논 것이 아니다. 쉰 것이 아니다. 기도했다. 내가 이곳을 떠나도 이 복음 운동 지속할 제자 한명, 이것이 기도인 것이다. 그 날도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가다가, 아직도 안 나타났기 때문에 기도를 더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다가 만났다.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해서 만났게 아니라 기도처 있는가 물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괜히 지나가다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렇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시대적인 위대한 전도를 시작한 것이다. 골로새서 4:3에 골로새교인들에게 사도바울이 기도를 부탁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해줘라는 것이다. 전도 문 여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맘대로 안된다는 말 아닌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전도의 문을 여는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도 베드로의 9시 기도시간에 만났다.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 제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문 열린다. 전도 문을 두고 진심으로 기도할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내게만 주시는 특별한 전도에 대한 기도가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딱 들어와야 한다. 사도바울은 기도로 전도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기도 없는 전도는 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제자 없는 전도는 파급 안된다. 다락방이 계속 정체된다. 제자가 없어서. 왜 제자가 안 붙나? 그 사역자가 제자에 대한 눈이 없기 때문이다. 전도와 제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전도가 안되는 것이다. 전도에 있어서 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우리가 캠프때 사도행전 강의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도바울의 전도 개념, 그 중에서 제자 부분이 어떠한가 보자는 것이다. 이해 잘 안될수 있다. 거기에 가야 하고 기도하면 눈 자꾸 열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복음 운동이 땅끝까지 파급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 받는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도 목표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은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기를 진짜로 원하신다. 그래서 제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제자를 이해해야 한다. 2부 예배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전도가 뭔가, 제자가 뭔가, 그것과 관련된 기도가 뭔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자

붙여주시길 믿는다. 제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언약 주실 줄 믿는다. 전도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내 구원이 최고로 중요하듯이 그러므로 전도가 최고로 중요하다. 내가 구원 받은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듯이 다른 사람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구원 받았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진 것 같이 또 한명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 뿐 아니라 전도는 개인 응답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응답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전도를 하러니가 부담되고 그런데, 딱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 나는 이 귀중한 전도에 부담이 있나요? 기도하면 해결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문을 열어주세요. 문은 하나님이 여시지 내가 엽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경계, 우리 아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응답된다. 경계도 함께 해결되고 자녀도, 질병도 함께 해결된다. 그래서 전도는 개인 응답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전도를 하는 행위를 말하지 않는다. 해야 하겠지만 내가 마음에서 먼저 전도자로 서고 답이 나게 해주세요. 전도에는 개인의 한계를 뛰어 넘는 권세가 있다. 걸려서 안 넘어가는 것, 박살내는 권세가 있다. 시대적인 인물로 사는 약속이다. 시대적인 인물, 렘넌트 7명 전부 전도자이다. 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는 성경의 모든 약속을 현장에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복하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승리는 밟고 서는 것이다. 사단을 밟고 서야 한다. 내 모든 문제를 밟고 섰다. 내 맘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과 근심을 밟고 섰다. 이런 영적인 축복 권세를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내용은 말씀이고 방법은 전도이다.

오늘 나의 전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전도는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응답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전도할 마음이 없는 분은 하나님 내게도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라. 할려고 하는데 왜 문이 안열립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분명히 제자가 필요한데, 왜 나는 제자가 이해 안되니까? 기도하면 지금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도 나가고 속도 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명하다. 전도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하다. 필요하다. 원하신다. 분명하다. 그러면 그것 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된다. 잘 되고 못되고는 다음 문제고 하나님의 문제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생각 있고 답이 있으면 하나도 힘이 안든다. 마음이 바뀌면 놀라운 축복이 된다. 이거 하다가 죽고 싶을 정도이다. 마음이 안 바뀌면 미치겠네 그럴 것이다. 누구 잘못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해야 한다. 답이 나오는 것이다. 아주 쉽고 간단한데 이 방법으로 안하니까 모든 인생 부분에 복잡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적 전도를 미국과 남미에 전달하기 위해 표본적 교회라는 것을 잡았다. 되겠는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 왜 나는 이런 단어가 내게 안들어오나 기도해야 한다. 왜 나는 미국, 남미, 세계 복음화, 237 이런게 안들어오는가? 막는 것은 사탄이다. 하나님, 왜 입으로만 하고 마음이 없는가? 그래서 기도가 답인 것이다. 응답을 받아야 하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기 바란다. 진짜 시작이다. 연세 있어도 괜찮다.

1월에는 LA에서 컨퍼런스 할 것이다. 이 복음을 미국에 전달하는 것이다. 복음만 전달해서 안된다. 성경적 전도 전략을 전달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줄 믿는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냥 듣지 말고 언약 잡고 예배 드리기 바란다. 타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언약 잡고 예배 드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나도 정복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미국 남미 끝까지 가고, 렘넌트 남미, 다민족 구하는 한 시대의 안디옥교회 되기 바란다.